

4일 Market Index			
↑ 코스피	2674.27	↑ 코스닥	872.97
	(+31.91)		(+10.01)
↓ 금리 (연-5년)	3.360	↓ 환율 (원-달러)	1331.30
	(-0.025)		(-0.20)

# metro 경제

尹 “TK신공항 건설  
대구 교통망 혁신 기폭제  
정부 과감히 지원”



02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4년 3월 5일 화요일

## 형제 간 ‘책임경영’ 신호탄... 미래 경쟁력 시너지 기대

**효성, 2개 지주사로 재편**  
중공업·섬유-첨단소재 분리  
급변하는 경영환경 책임강화  
비슷한 지분으로 분쟁 예방



조현준 회장 조현상 부회장

효성그룹이 사업을 이원화하며 미래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한다.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이 사이 좋게 계열을 나누가지며 새로운 경영 승계 사례를 남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주)효성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주)효성신설지주(가칭)를 설립하고 계열사를 인적 분할하는 계획을 결의했다.

신설지주에 효성첨단소재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을 비롯해 계열사들을 배치하는 내용이 다. 효성홀딩스 USA와 베트남 비나물류법인, 광주일보와 효성토요타와 더클래스효성 등 모빌리티 플랫폼도 함께 한다.

효성그룹은 효성중공업과 효성티앤씨 및 효성티앤에스, 효성화학과 효성ITX와 함께 FMK와 기타 계열사를 이어서 거느리

게 된다.

효성은 오는 6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회사 분할 승인 절차를 거쳐 7월 1일자로 2개 지주사 체제로 새로운 체제를 시작할 예정이다. 분할 비율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주)효성이 0.82, 효성신설지주가 0.18로 결정했다.

신설지주회사는 조현상 부회장이 대표를 맡아 안성훈 효성중공업 부사장과 신덕수 (주)효성전무가 이사회를 꾸릴 예정이다. 사외이사로 권오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오병희 전 서울대병원장, 이상엽 카이스트 부총장과 김진수 (주)툴젠 고문을 내정했다.

효성은 (주)효성이 전통적인 사업인 중공업과 섬유를 이어가는 가운데, 신설지주가 미래 소재

및 물류 및 데이터 솔루션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신설지주가 첨단소재와 데이터 솔루션, 글로벌 SCM을 중심으로 신사업과 M&A를 모색하며 성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효성은 이번 분할이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책임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화해 경영을 효율화하겠다는 것. 증권가에서는 효성첨단소재가 부채 비율이 높고 효성화학이 완전히 분리되면서 재무구조를 안정화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내놓고 있다.

특히 재계에서는 효성이 지주사 분할을 통해 형제간 계열 분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다. (주)효성이 조현준 회장 21.94%, 조현상 부회장이 21.42%로 비슷한 지분 구조, 조현상 부회장에 따라 지주사를 마련하면 ‘형제의 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서다.

분리된 계열사는 이미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이 경영능력을 증명한 곳이기도 하다. 조



日 닛케이 지수 장중 최고치 경신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55 평균주가(닛케이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만선을 돌파했다. 4일 닛케이지수는 오전 9시 개장과 동시에 4만선을 넘어 4만109로 마감했다. 닛케이지수가 장중과 증가 기준으로 4만선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닛케이 지수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현준 회장은 2017년 회장에 취임해 효성티앤씨 ‘1조클럽’에 가입시키는 등 그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왔으며, 조현상 부회장은 효성첨단소재 이사를 겸임하며 타이어코드를 중심으로 첨단소재 부문에서 경쟁력을 높이는데 성공했다. 조현상 부회장은 효성첨

단소재 지분도 12.21%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효성이 성공적으로 계열을 분리하면 재계에서 또다른 안정적인 승계 사례를 남길 수 있을 전

망이다. (2면에 계속)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 7000여명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예고

**의료계 집단행동**

정부, 엄정한 사법처리 시작  
현장점검 통해 오늘 사전통보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을 지난 3일까지로 선처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존 계획대로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상 초유의 대규모 면허정지 사태가 예고되며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처벌 면제를 약속한 복귀 시한인 지난달 29일까지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8945명(71.8%)이다. 복귀한 전공의는 누적 565명에 그쳤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복귀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정부가 선처를 약속했던 지난 3일까지도 복귀하지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않은 만큼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1일 공고를 통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식 송달하고 이날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의견진술 절차 등을 거쳐 면허정지 등 후속

조치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많은 국민들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미복귀 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정부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하의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

고받게 된다.

면허정지 위기에 놓인 전공의는 7000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사상 초유의 집단 면허정지 사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7000여 명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가 돌입되는 것”이라며 “현장점검을 통해 부재가 확인되면 내일(5일) 바로 사전 통보를 예고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



### 메트로경제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생존을 넘어 성공으로 수축경제 시대, 재테크

메트로신문이 오는 3월 20일(수)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을 개최합니다.

저성장, 고금리 속에 국내외 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잃어가는 수축사회에 직면해 있습니다. 재테크 전략도 다시 짜야 합니다.

메트로신문은 ‘생존을 넘어 성공으로, 수축경제 시대 재테크’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국내외 경제와 주식시장을 전망하고, 고령화시대 재테크와 부동산 투자 전략을 모색합니다.

- 행사명 : 2024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1)
- 주 제 : 생존을 넘어 성공으로, 수축경제 시대 재테크
- 일 시 : 3월 20일(수) 오후 2시~5시10분 (VIP 티타임 오후 1시30분~2시)
- 장 소 :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 문 의 : 100세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여3차 경선 결선서 손범규·유낙준·김동원 승리  
▲ 이광재 ‘분당갑’ 출마 선언...“안철수 정책토론으로 붙어보자” /사진 뉴시스

▲ 너무나 더딘 국민의힘 TK 공천... 7곳 미확정  
▲ 이재명 “한동훈 남의 눈 티끌만...여측 근·검사·씩은물·돈봉투 나쁜 공천 반복”



▲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 “선거구 조정 기준 개편 필요” 한목소리  
▲ 설훈 “승리해 반드시 민주당으로 돌아오겠다”... 민주당대기가능성 시사 /사진 뉴시스